

### ③ 도새재생 우수사례 탐방

#### □ 22@ 혁신지구

##### 주요 현황

-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오래된 공업지역인 포블레노우(Poblenou)지역의 공업코드 22a에서 착안하여 이루어진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 포블레노우지역은 중심시가지로부터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1800년대 카탈루냐지방 경제를 이끌던 방직산업 및 기타 제조업의 중심 공업지대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방직관련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공장들이 대거 철수하여 슬럼화되면서 버려진 땅으로 남게 되었다.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2007년 7월 22@플랜 사업 승인을 이후, 지식기반 산업·교육·주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혁신지구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 22@프로젝트 재생계획은 1단계 물리적 환경개선, 2단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3단계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추진되었다.
- 또한 다양성, 혼합, 고밀도 압축공간이라는 세가지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의 시간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 일 시 : 2022. 12. 20.(화)

○ 내 용 : 바르셀로나 22@ 혁신지구 탐방

○ 기 기 전

2003년

재생사업 관리

2004년

인프라 계획 수립 및 적용

2004년~현재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 물리적 개선

2016년 이후

재생사업의 재부양 (스마트 도시재생, 슈퍼블록 확산 등)

출처 Ajuntament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시의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계기로

포블레노우가 바르셀로나시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2@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을 지식기반 산업·교육·주거 등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혁신지구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2@프로젝트의 재생계획은

1단계 물리적 환경개선

2단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3단계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  
총 3단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 혼합, 고밀도 압축공간이라는

세가지 콘셉트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의 시간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광주시 북구청 '대학타운형 재생뉴딜사업센터'가 작성한 도시재생사례 (2021.7.)

☐ 라발지구(el raval)

## 주요 현황

- 라발지구(elraval)는 19세기 산업 혁명으로 공장들이 들어서고, 값싼 노동력을 위해 이주민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현재 약 70여 개국의 이민자 2만여명(라발지구의 47%)이 살고 있는 다민족 지구이다.
-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지만, 여러 사회 문제와 얽혀, 치안이 안좋은 동네라는 인식으로 관광객 및 시민이 기피하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였다.
- 1985년 라발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지 재생 특별계획을 진행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도시빈민가를 빈부층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 특히, 문화적 도시재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현대문화센터(CCCB) 현대미술관(MACBA), 대학교 캠퍼스 등을 유치하여,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문화중심지로 거듭나게 하였다.
- 현재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바르셀로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광장에서는 보드를 타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고, 관광객을 겨냥한 맛집과 선물가게, 카페 등 오밀조밀한 상점들이 빈틈없이 도로변을 메우고 있다.

○ 일 시 : 2022. 12. 21.(수)

○ 내 용 : 바르셀로나 라발 지구 탐방

○ 시사점

- (문화적 도시재생)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문화센터, 디자인협회 등

## ⑧ 라발 지구

○ (방문일시) 2017. 5. 17.(수) 16:00~18:00

○ (지구개요)

- ▶ ‘아름다운 라팔 만들기 운동’을 통해 도시빈민가를 빈부층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중심지로 거듭나게 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례임
- ▶ 1970년대 차이나타운에서 시작되어 많은 이민자들의 삶의 터전이며, 현재 약 70여 개국의 이민자 2만여 명(라팔지구의 47%)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임
- ▶ 바로셀로나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광객 뿐만 아니라 시민마저도 접근하지 않는 지역이었음
- ▶ 1985년 라팔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지 재생 특별계획을 책정하여 재개발에 착수함
- ▶ 재개발 결과, 현대문화센터는 다양한 전시회, 공연, 문화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연 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라팔지구의 중심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신문

출처 : 경북 성주신문이 기획보도한 기사 (2019)

라발의 '문화적' 도시재생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인 라발(Raval) 지역은 인구 5만명으로 성주군과 비슷하다. 이 작은 동네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명소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걸까?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낮에도 접근하기가 두려울 만큼 '빈민가 우범지역'이란 꼬리표로 외면 받아온 라발이 최근 도시재생, 특히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젊은 예술가의 동네로 변모하는데 성공했다.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문화센터, 디자인협회 등 복합문화시설과 공공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바르셀로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다. 광장에서 는 보드를 타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고, 관광객을 겨냥한 맛집과 선물가게, 카페 등 오밀조밀한 상점들이 빈틈없이 도로변을 메우고 있다.



## ②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 2022 12 20(월)

○ (개요)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 박물관이다.

소장품의 수와 질 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다. 현재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강 주변을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루브르 박물관은 루브르 궁전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면서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였다. 안쪽 중앙에는 루브르의 상징이 되어버린 유리 피라미드가 있다. 루브르가 있던 옛날부터 있던 구조물은 아니며 프랑스 혁명 200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써 공모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주요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가 루브르 3대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 외에도 명작들이 셀 수 없이 많다. 3동으로 나뉘어있으며 38만점 이상의 작품을 한번씩 보려면 고박 일주일도 걸린다고 한다.

○ (소장품) 박물관으로서의 루브르는 1793년 8월 10일 537점의 회화를 전시하며 첫 문을 열었는데 전시된 작품은 대부분 몰락한 귀족과 교회에서 징발된 수집품들이었다. 제2제국(나폴레옹 3세 통치 기간) 중에는 20,000여 점의 수집품이 들어왔다.

루브르는 고대 중근동이나 이집트부터 대략 1850년대까지의 고전 작품들을 주로 소장하고 있다. 고대 중근동이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물,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 등에 관심이 있다면 필히 방문해야 할 곳이다.

또한 근대 미술계의 대작들, 쉽게 말해 교과서에서 보던 모나리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등도 바로 이곳에서 전시하고 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좌표: 북위 48° 51' 40" 동경 2° 20' 11"

(루브르박물관에서 넘어옴)

**루브르 박물관**(프랑스어: Musée du Louvre)은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 박물관이다. 소장품의 수와 질 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다. 현재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것으로, 파리의 세느강 주변을 포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루브르 박물관 앞의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인 루브르 피라미드는 근대에 건설된 것으로 한때 어울리지 않는 평이 많았으나 현재는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프랑스어로 뒤편 루브르, 그랑 루브르, 또는 단순히 루브르라고도 불린다.

루브르 박물관은 루브르 궁전 내부에 위치해 있다. 루브르 궁전은 12세기 후반 필립 2세의 명으로 착공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궁이 아닌 요새였다. 아직도 당시의 요새 잔재들을 볼 수 있다. 이 요새가 루브르 궁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했다.

### 루브르 박물관

Musée du Louvre



유형	미술박물관
국가	<span><span><span></span></span><span> </span></span> 프랑스
소재지	파리
개관일	1793년 8월 10일
관장	장 푹 마르티네즈
방문객 수	약 7,300,000명 (2016년 기준) • 방문객 수 전세계 1위

출처 : 위키백과,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 □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일명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 주요 현황

- 본래 이곳은 1780년대 지어진 산 카를로스 종합병원 건물이었다. 호세 데 에르모시아가 설계를 시작해 프란체스코 사바티니가 계승한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웅장한 건물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병상을 없애고 환자 진료만 할 정도로 병원 기능을 잃었으며, 1965년 병원을 폐쇄하였다.
- 1975년 독재정치를 철친 프랑코가 세상을 떠나자 국가소유인 건물을 두고 철거와 보존 논쟁이 벌어졌다. '독재시대 잔재로 철거하자'는 의견과 '18세기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977년에 왕실 법령에 의해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은 '건물양식을 볼 때 방치된 병원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는게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1982년에 미술관으로 개관해 특별전시 형태로 임시 운영하다가 10년 후인 1992년 9월에 본격적인 미술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이때 파블로 피카소의 1937년 작품으로 피카소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게르니카' 작품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 소피아 미술관은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부상했다. 소장품들은 회화 4,000점, 조각 1,400점, 드로잉 약 3,000점, 판화 5,000여 점, 사진 2,600점 등 약 1만 6,200점 정도이며 이 중 약 2%만이 전시되고 있다.

\* '게르니카' 소장 레이나 소피아 국립 미술관

이곳은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대표작 '게르니카'(Guernica)를 비롯해 살바도르 달리, 후안 미로, 후안 그리스와 같은 스페인 출신 초현실주의·입체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소장 작품은 그림 4100점과 조각 1700점, 드로잉 3600점, 판화 5500점, 사진 4230점 등 2만여 점에 달한다.

본래 이곳은 1780년대 지어진 산 카를로스 종합병원 건물이었다. 이탈리아 건축가 프란시스코 사바티니(1722~1797)가 세웠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병상을 없애고 환자 진료만 할 정도로 병원 기능을 잃었다.

1975년 독재정치를 편 프랑코가 세상을 떠나자 국가소유인 건물을 두고 철거와 보존 논쟁이 벌어졌다. '독재시대 잔재로 철거하자'는 의견과 '18세기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977년에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은 '건물양식을 볼 때 방치된 병원을 미술관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82년에 미술관으로 개관해 특별전시 형태로 임시 운영하다 10년 후인 1992년 9월에 본격적인 미술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이때 프라도 미술관에 반환됐으나 사실주의 작품 위주인 그곳 성격과 맞지 않던 '게르니카'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1994년에 연간 71만5200만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급증하자 1999년부터 프랑스 건축가 장 루벨의 설계로 신관을 짓기 시작했다. 2005년 9월에 완성된 신관은 주로 강철과 알루미늄, 유리, 합성자재 등 현대식 소재를 사용했다.

출처 : 광주일보 '도시재생 모범 사례 현장을 가다' 보도 (2017)



## 5 알렉상드로 3세 다리

알렉상드로 3세 다리 / 2022 12 23(수)

○ (개요) 프랑스 파리 센 강에 있는 다리로서 파리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다리로 손꼽힌다. 에펠탑 구획과 샹젤리제 구획과도 인접하며, 다리는 1896년~1900년에 지어진 것으로서 당시로는 최신식의 등과 천사 등을 형상화한 조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리의 명칭은 프랑스-러시아의 공조를 1892년 성사시킨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3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다리는 6미터의 높이로 지어져 있다. 철제 다리로서 아치 형으로 뻗어 있으며, 다리가 샹젤리제와 앵발리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되었다.

1900년 프랑스 만국박람회 당시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다리의 완공식이 열렸으며 건축은 르살과 알비라는 기술자가 맡았다고 전한다. 이에 알렉상드로 3세 다리는 프랑스 내에서도 역사적인 기념물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다리위의 조각품들은 가로등까지도 예술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조각상이 금칠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금 때문에 멀리서 봐도 알렉산드르 3세 다리라 알 수 있고 조명을 밝힌 에펠탑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해 많은 관광객이 지나며 야경을 즐기는 곳이다.

## □ 시사점

- (관광자원) 알렉상드로 3세다리와 샹젤리제 거리를 거쳐 콩코르드 광장까지 삼각축을 이루는 문화·역사·관광 자원으로 시민들에게 관광, 쇼핑, 역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관광지역의 진입축 연결
- (대 전 시) **엑스포다리**  
야경이 아름다운 엑스포다리는 대전을 대표하는 다리로 주변의 엑스포 과학공원과 한밭수목원, 엑스포시민광장을 잇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나 각종 행사, 야경 사진전 등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적극적 활용 및 홍보 필요

## 알렉상드로 3세 다리

40개 언어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역사 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좌표: 북위 48° 51′ 49″ 동경 2° 18′ 49″

**알렉상드로 3세 다리**는 파리 센강에 있는 다리로서 파리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다리로 손꼽힌다. 에펠탑 구획과 샹젤리제 구획과도 인접한다.

다리는 1896년~1900년에 지어진 것으로서 당시로는 최신식의 등과 천사 등을 형상화한 조각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리의 명칭은 프랑스-러시아의 공조를 1892년 성사시킨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3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다리의 초석을 내린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니콜라이 2세였다.

다리의 건설은 19세기 기술이 결집된 것으로서 6미터의 높이로 지어져 있다. 철제 다리로서 아치 형으로 뻗어 있으며 실은 다리가 샹젤리제와 앵발리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이 고려된 것이었다.

1900년 프랑스 만국박람회 당시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다리의 완공식이 열렸으며 건축은 르살과 알비라는 기술자가 맡았다고 전한다. 이에 알렉상드로 3세 다리는 프랑스 내에서도 역사적인 기념물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다리의 모습

## 외부 링크

[ 편집 ]

출처 : 위키백과





#### □ 이시레몰리노 지구

##### 주요 현황

- 이시레몰리노시는 파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면적 4.25km)이다. 도시재생(스마트시티)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사례로 1970년 후반까지 탈공업화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여 47,500명에 불과하였으나, 스마트 시티 정책의 성공으로 인구가 68,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 특히, 1980년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휴렛 팩커드, 부이그 텔레콤, 마리 클레르 등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7개 기준(에너지, 안전, 모빌리티, 데이터, 환경, 교육, 사회문화) 평가에서 2019년 세계 3위를 차지하였고, 환경 보존과 신기술 접근을 개발의 키워드로 설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 □ 이시레몰리노 시청 (Ville d'Issy-Les-Moulineaux)

##### →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도시개선

- 소재지 : 47 rue du General Leclerc 92130 Issy-les-Moulineaux, 프랑스
- 기업소개
  - 프랑스 수도 파리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도시재생(스마트시티)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1970년 후반까지 탈공업화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여 47,500명에 불과하였으나,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으로 인구가 68,000여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시레몰리노시의 면적 4.25km)
  - 특히 앙드레 상티니 시장 취임(1980년) 이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팩커드, 부이그 텔레콤, 마리 클레르 등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함
- 기업 방문 결과
  - 이시레몰리노 스마트 시티 개요
    - 이시레몰리노 시는 프랑스 및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마트시티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음.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7개 기준(에너지, 안전, 모빌리티, 데이터, 환경, 교육, 사회문화) 평가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하기도 했음.
    - 환경보존과 신기술 접근을 개발의 키워드로 설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서비스 개발에 다양한 주체(시민, 민간기업 등)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리빙랩(Urban Living Lab)을 실행하고 있음.
    - 이시레몰리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자연환경적인 요소를 중요시하고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시공사의 국외 출장보고서 (2019)